

대학도서관의 변화 추이 및 전략적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trategic Development & the Changes in Academic Libraries in Korea

곽 동 철(Dong-Chul Kwack)**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전략 |
| II. 대학의 경영난과 구조개혁 추진동향 | VI. 결 론 |
| III. 대학도서관 경영의 변화 추이 분석 | |
| IV.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발전
계획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속에서 대학도서관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경영난과 구조개혁에 따른 대학도서관 경영의 변화 추이를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안사항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발전전략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대학도서관, 도서관경영, 도서관정책, 로드맵, 전략계획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strategies for development which could help academic libraries expand and strengthen their significances in the midst of structural innovations for universities in Korea. In this study, the trend in changes in academic libraries affected by financial difficulties and structural reforms in universities is analyzed, and major issues and challenges that academic libraries have currently faced are investigated. Also, reviewed are strategies that major academic libraries in advanced countries have built, and it is suggested how to establish strategies for development and medium-and long-term plan for improving academic libraries, which should be carried out on the government level.

Key Words: Academic Library, Library Management, Library Policy, Road Map,
Strategic Planning

* 이 논문은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에 관한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제작성함.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정보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kwackdc@cju.ac.kr)

• 접수일: 2006년 11월 28일 • 최초심사일: 2006년 12월 11일 • 최종심사일: 2006년 12월 21일

I. 서론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계속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과 지식정보유통 전략의 수립 및 집행이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식정보사회 이전까지는 인적자원개발과 지식정보유통은 서로 다른 별개의 주제로 다루어져 왔지만, 지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다루어 나가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경쟁이 치열한 요즘 우리 자신의 고유한 지식정보자원이 없으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요원할 것이다. 일반적인 지식정보가 하나의 자원으로서의 값어치를 지니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가자산으로 탈바꿈하기까지는 끊임없는 시간과 예산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어느 한 나라의 대학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식정보자원의 범위는 그 나라의 지식정보자원 공유 체제를 감안하더라도 결국은 그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의 수준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식정보관리 분야의 통계 등을 살펴보면 전체 지식정보자원의 총량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의 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진단하여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대학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정책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대학도서관 관련 예산이나 업무상 중복 배제 문제, '도서관정보화 추진 종합계획',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국가지식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의 사항에 대해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연구 범위에 포함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별 지식정보의 자산화와 지식강국화를 위해 수립한 대학도서관 활성화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로드맵 작성 관련 국내·외 정보자료들을 수집하여 조사·분석한다. 둘째,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와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를 비롯한 대학도서관 관련 내용들을 중심으로 국내 대학도서관의 장·단점 분석, 문제점 도출 등을 포함한 총체적 진단을 실시한다. 셋째, 국가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및 지식강국 구현을 위해 성장 동력으로서 대학도서관을 국가핵심기반 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 세부 사업의 상호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대학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 및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차원의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며,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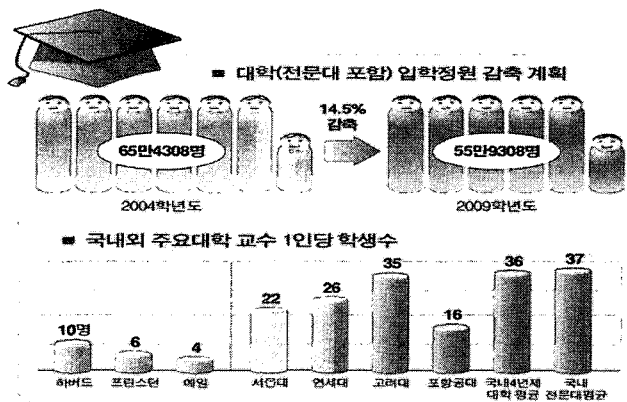
1) 허성도, 서울대학교 도서관 장기발전계획(서울 : 동 도서관, 2005), p.16.
정희식, "국가지식자산의 확충." http://hirizine.com/file_pds/pub01/200301/KER200301_03.pdf

및 지원책을 제시한다.

II. 대학의 경영난과 구조 개혁 추진

1. 대학 경영난과 학생수의 감소

우리나라 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구조 개혁의 원인은 대학의 경영난과 학생수의 감소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낮은 인구증가율로 인해 대학 입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수가 <그림 1>에서와 같이 2004년 66만 여명에서 2021년에 42만 여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림 1> 대학 입학정원 감축 및 교수 1인당 학생수²⁾

더욱이 국내 대부분의 사립대학 재단은 경영부실과 이념부족으로 인해 대학의 경영 발전을 위해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재단 전입금을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거의 불입하지 않거나 전무한 상태에 있다. 또한 1996년 이후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대학수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은 1995년에 131개교에서 2005년 170개교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에다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을 포함시키면 200개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대학의 학생 미충원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대학의 수적 증가와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생 수가 격감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조선일보, 2004년 9월 1일.

2. 대학 구조 개혁 방법 및 추진 계획

최근 우리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구조 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대학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 입학 정원의 감축과 대학 정보를 언론 등에 공개하는 방안 등을 활용하여 대학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정부 재정지원의 축소 및 중단, 대학 입학 정원 감축 등 압박 조치를 통해 대학들의 통·폐합 및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즉, 교수 1인당 학생수를 국립대학은 21명, 사립대학은 24명 이하로 감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교원 확보율을 일반대학은 52.9%, 연구중심대학은 65%, 교육중심대학은 61%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6년부터 교수 1인당 학생수 40명 이상인 경우에 정부 재정지원을 중단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2004년 기준으로 이에 해당되는 4년제 대학은 전체 200개교 중 73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학 구조 개혁 추진 일정은 <그림 2>와 같다.³⁾

	사업내용	추진일정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대학의 정보 공개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				
	대학관련 평가·결과 공표기관 다양화	→	→			
교육여건개선/특성화촉진	국·사립대학 교육여건 개선			→	→	→
	대학 특성화 지원			→	→	→
	대학별 발전지표 설정 유도		→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국립대학간 통합 및 연합대학체제 구축			→	→	→
	국립대학 회계제도/운영체제		→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대학간 다양한 통합 촉진	→				
	사립대학 재산의 효율적 활용 지원	→				
	사립대학 자발적 구조개혁 노력 지원		→			
	퇴출 제도 보완	→				
대학원 구조개혁 추진	대학원평가시스템 구축		→			
	대학원 규모 적정화					→

<그림 2> 대학 구조개혁 추진 일정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여건의 개선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학의 정보 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즉,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경련 등 재계 건의를 수용하여 대학의 정보를 공시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 공시 내역

3) 박동철·윤정옥·김기태,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에 관한 연구(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5), p.13.

에는 현재 각 대학들이 대부분 기밀로 취급하고 있는 졸업생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개별 대학들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개별 대학이 발전지표를 설정하도록 하였고, 향후 계속 사업으로 국·사립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대학별 특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간 통·폐합 및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1996년 이후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적용하면서 비롯된 국내 대학 수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간 통·폐합 및 퇴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 자체의 변화는 곧바로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공립대학의 경우에 동일한 지역 대학들 사이의 통합 또는 연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본과 같이 국·공립대학의 공익법인화도 추진 중에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동일한 학교법인 소속 대학들 사이의 통합을 권장하고 있다. 전자나 후자의 경우 모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합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한 장려책으로 국공립대학에 교직원수 및 국고보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며, 사립대학에는 교원 확보율의 준수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3. 대학의 구조개혁이 도서관에 미칠 영향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직접적·간접적으로 대학도서관의 경영 관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학의 경영자가 대학 본래의 목적 추구보다는 일부 사학과 같이 재정수익을 앞세우거나, 대학의 궁극적인 발전보다는 총장 개인의 재임 중 실적을 강조하기 위해 현실에 영합하여 행동한다면 투자에 비해 효과가 오랜 뒤에 나타나는 대학도서관은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IMF라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대학도서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대학의 경영자가 걸로로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목적을 앞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직수당 등과 같은 관리예산을 절감하고자 대학도서관의 조직체계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의 조직체계를 바꾼 대학들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군소대학들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대학의 분교나 규모가 작은 대학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유형들을 살펴보면, 일부 대학은 대학 내 복수의 도서관을 통합하여 분관화를 추진하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대학들은 도서관의 기구를 축소하거나 대학 내 타 기관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도서관의 명칭을 학술정보원이나 학술정보

센터 등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결국 도서관의 정체성을 흐드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도서관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발전이 곧 대학의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대학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개혁은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상대적으로 대학 내에서 발언권이 높지 않는 대학도서관의 인력 감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대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사서직원의 타 부서 전출, 전임 사서직의 인력 감축과 충원 및 증원 억제, 대체인력의 증가 등을 예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이 이러한 대체인력인 공익요원, 계약직, 인턴사원,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을 배제한다면, 그 즉시 대학의 학술연구지원이나 정보서비스 업무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업무가 마비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학의 경영자는 구조 개혁이란 명분을 활용하여 조직의 축소 개편, 인력의 감축과 함께 대학도서관의 운영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은 자료구입비를 제외한 도서관운영비의 삭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경영자가 대학도서관의 조직, 인력, 예산을 현실에 맞지 않게 대폭 감축하는 것은 대학의 구성원에 대한 학술연구지원을 축소하는 것이며, 중국에는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또한 대학도서관 업무의 아웃소싱 역시 도서관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대학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운영예산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아웃소싱(외주, 위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선진국과 같이 아웃소싱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력 부족을 타개하고자 궁여지책으로 몇 가지 도서관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Ⅲ. 대학도서관 경영의 변화 추이 분석

1. 대학도서관 주요 지표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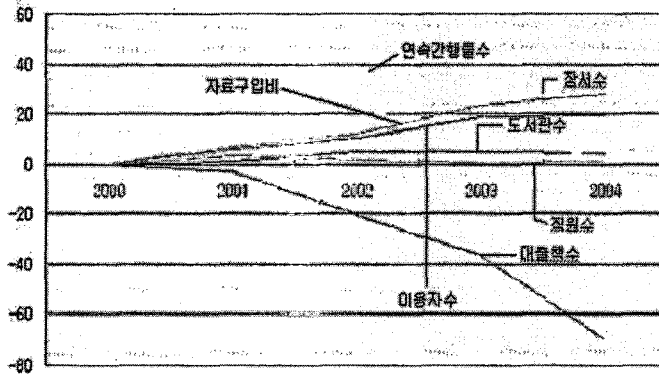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도서관 경영상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국내 대학도서관 경영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 주요 지표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조사·분석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지표들은 도서관수, 도서관 직원수, 장서수, 연속간행물수, 이용자수, 대출책수, 자료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표들을 연도별로 조사 분석하면 특정한 변화 추이가 나타나며, 그 결과는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표 1>은 한국도서관통계 및 한국도서관연감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최근 5년 동안 국내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주요 지표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것이다.

〈표 1〉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주요 지표 변화 추이

구분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도서관수(관)	416	420	436	438	435
직원수(명)	3,802	3,925	3,866	3,814	3,831
장서수(권)	68,665,087	75,837,882	81,612,498	86,152,907	90,099,891
연속간행물수(종)	349,509	369,546	486,766	386,283	359,816
이용자수(명)	56,845,599	60,525,449	62,649,284	67,504,544	67,866,690
대출책수(권)	110,528,109	106,986,736	88,108,530	69,883,517	32,801,051
자료구입비(천원)	122,793,538	131,116,024	137,162,228	151,536,249	157,492,317

〈출전〉 한국도서관통계 2000, 2001, 2002, 2003 및 2004 한국도서관연감.

상기 표의 분석 결과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주요 지표별로 특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국내 대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인쇄형) 구입 종수는 2002년을 지나면서, 대출책수는 2001년 이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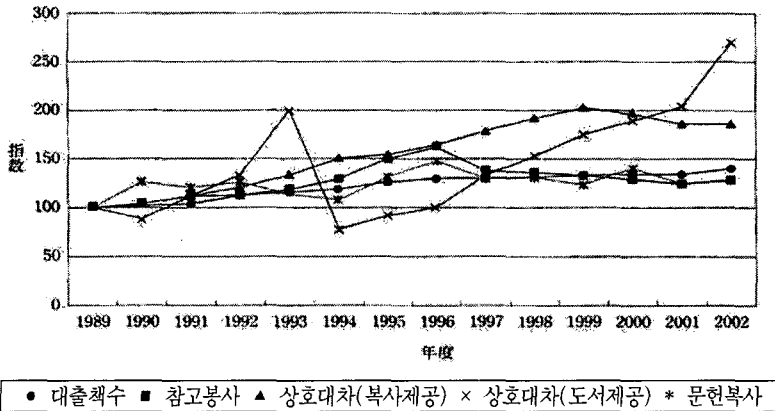
〈그림 3〉 대학도서관의 주요 지표 변화 추이 분석 결과⁴⁾

이처럼 대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 구입 종수의 급감 원인은 해외 연속간행물 가격의 급등과 자료 구입예산의 완만한 상승 및 동결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 대학도서관의 대출책수가 현격히 감소한 것은 대학마다 경쟁적으로 추진한 디지털도서관의 운영, 도서관 직원 수의 감소, 도서관 서고의 개가제 전환, 도서관자료로서 전자출판물의 증가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변화 추이와는 달리 선진국 대학도서관들의 도서관 대출책수나 상호대차(도서제공)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일본 대학도서관의 대출책수 및 상호대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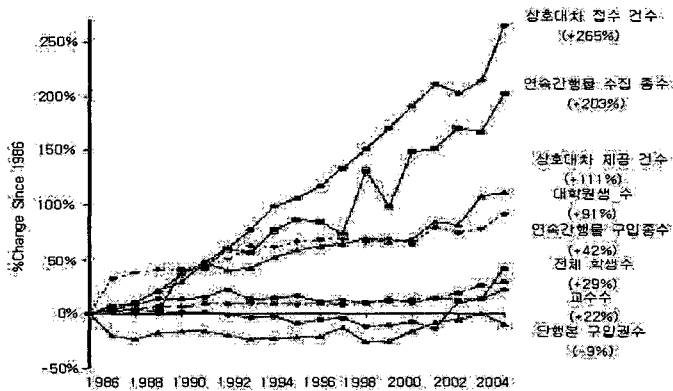
4) 박동철, "대학도서관의 성장기 발전정책 수립 및 추진 방향 설정,"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제25차 관리자 세미나 자료집(제주 : KAL호텔, 2005. 10. 6-8), p.27.

통한 도서 제공 건수는 <그림 4>에서와 같이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 일본 대학도서관 직원 1인당 서비스 공급량⁵⁾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대학도서관의 대출책수와 관련성을 지닌 상호대차 접수 및 제공건수가 미국연구도서관협회(ARL) 통계 등에 의하면 <그림 5>과 같이 증가하는 통계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⁶⁾ 이러한 선진국의 변화 추이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으로 하여금 그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사유를 관찰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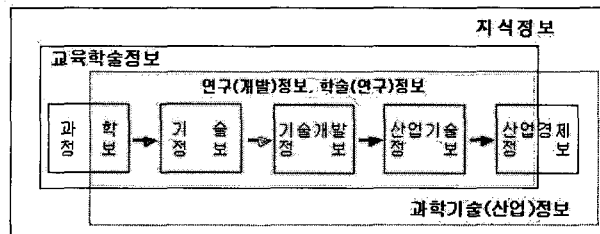
<그림 5> 미국 연구도서관의 서비스 공급 및 수요 추이⁷⁾

5) 逸村 裕·竹内 比呂也, 変わりゆく大学図書館(東京: 勁草書房, 2005), p.7.
 6) ARL, ARL Statistics 2002-2003(Washington D.C.: ARL, 2004).
 7)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2005, ARL Statistics: A Compilation of Statistics from the One Hundred and Twenty-Three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Compiled by Martha Kyriallidou and Mark Young. Washington, D.C.: ARL. <http://www.arl.org/stats/pubpdf/arlstat04.pdf> [online] [Access 2005.12.19]

2. 대학도서관 지식정보자원의 분류 및 범주

오늘날 대학도서관이 과거에 비해 수집·축적·활용해야 할 지식정보자원의 범주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우선 과학기술 및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다루어야 할 지식정보매체가 다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관리의 범주도 <그림 6>에서와 같이 기존의 눈에 보이는 지식정보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정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장되고 있다.⁸⁾ 즉, 대학도서관에서 다루어야 할 지식정보매체의 다양화는 지식정보관리 면에서 사서의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대학도서관 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에서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정보자원으로 다루어야 할 범주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 및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를 좀더 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정보자원의 분류 및 범주에 대한 구분 시도는 학자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달리 다루어질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부는 기술의 진보과정을 다루면서, 또한 일부는 전문성이나 학술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산업)정보, 연구(개발)정보, 학술(연구)정보, 교육(학술)정보, 지식정보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그 분류 및 범주를 서로 달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히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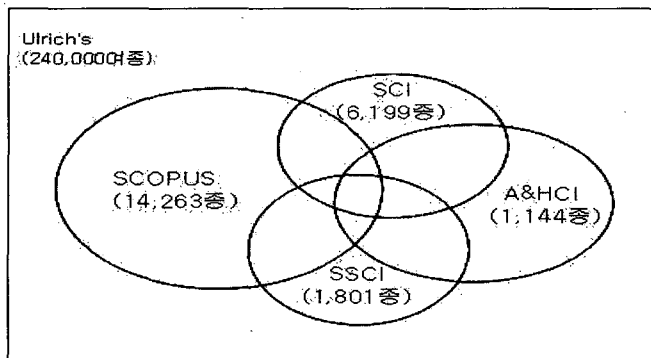
<그림 6> 지식정보자원의 분류 및 범주

결국 대학도서관의 경쟁력은 소장 또는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정보자원의 양과 질로 결정될 것이다. 세계 수준의 대학을 지향하고, 대학의 학술연구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식정보지원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자면, 대학도서관이 얼마나 많은 지식정보자원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 점검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대학의 순위와 대학도서관의 장서, 자료 구입비 및 최신 학술지 소장 순위 등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⁹⁾ 과연 세계적인

8) 박동철,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체제 구축 및 전략적 연계방안 연구(서울 : KERIS, 2003), p.13.

9) 박동철·윤정옥·김기태,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에 관한 연구, p.29.

로 얼마나 많은 양의 출판물들이 매년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국제출판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50만종 이상의 단행본이 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연간 약 35,000종의 도서가 발행되고 있다. 또한 학술지는 국제적으로 매년 24만 여종 정도 발행되고 있으며,¹¹⁾ 국내에서도 연간 약 3,700여종 발행되고 있다. 그리고 Web of Science 및 Scopus에서 인용문헌색인 작업을 위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요 학술지의 수는 다음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Web of Science 및 Scopus의 수록 학술지 비교

이처럼 Web of Science에서는 8,700여종의 주요 학술지-과학기술분야(SCI) 6,199종, 사회과학분야(SSCI) 1,801종, 인문·예술분야(A&HCI) 1,144종-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고, Elsevier사의 Scopus에서는 14,263종의 과학기술 및 사회과학분야 전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색인·초록 및 인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Web of Science와 Scopus의 데이터베이스에 동시에 수록된 학술지 약 7,000여종은 과학기술 및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연구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저널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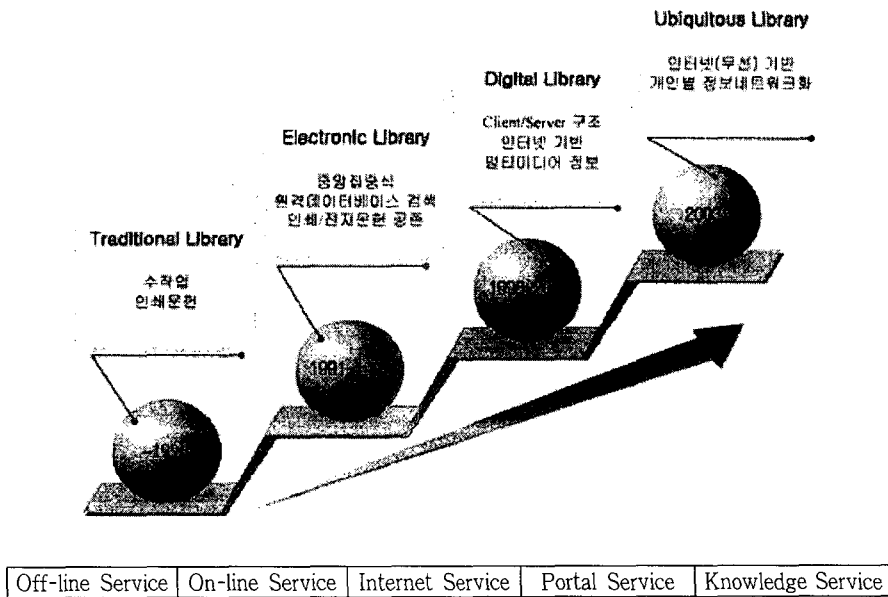
3. 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지식정보자원, 이용자 환경의 변화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의 유형이 <그림 8>에서와 같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유형이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고, 현재 유형이 과거 유형을 포함하여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향후 도서관의 모습은 전통적 도서관(Traditional Library)을 기반으로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 Digital Library, Ubiquitous Library)의 기능이 확장된 혼합적인 도서관(Hybrid Library)으로 발전되어

10) 허성도, 서울대학교 도서관 장기발전계획(서울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05), p.15.

11) 박동철, 해외 학술정보 습득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 규모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pp.4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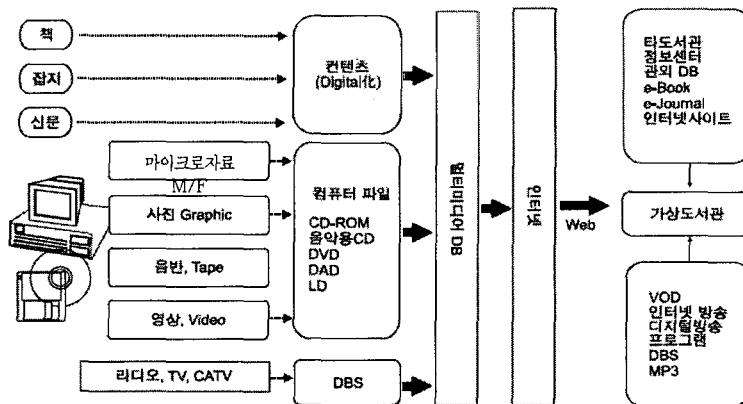
나갈 것이다. 이 경우에 대부분 도서관들은 지식정보자원의 소장은 물론이거니와 온라인 접근을 위한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규모가 크지 않는 신설 대학도서관이 시작단계에서 종이매체 중심의 전통적인 도서관의 운영을 포기하고 곧바로 전자도서관만의 운영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학술연구를 위한 지식정보유통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논리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우리의 경우에 아직까지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하겠다.



〈그림 8〉 도서관정보서비스의 변화 추이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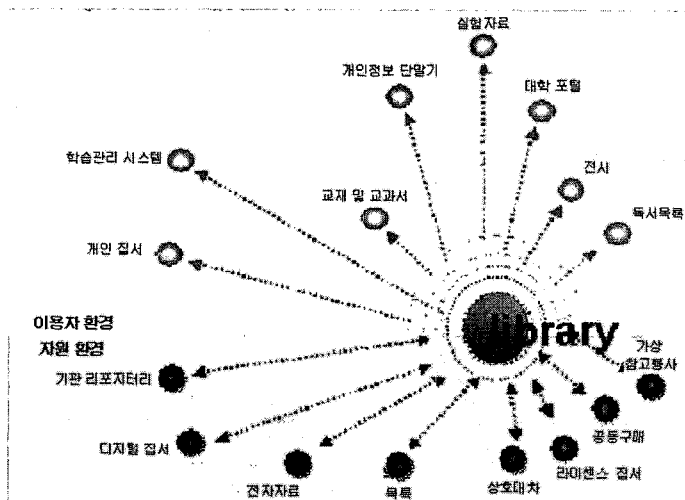
대학도서관은 과학기술 및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다음의 〈그림 9〉에서와 같이 대학도서관에서 다루고 있는 기존의 지식정보자원들 가운데 상당량이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출판물로 변환 과정을 거치면서 통합되어 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자출판물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원문데이터베이스(Full-text DB)와 전자저널 등과 같이 그 구분도 모호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2) 이응봉. "DL/UL의 발전 동향." 제70회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하계세미나 자료집(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지리산가족호텔, 2005.6.2-4), p.8.



〈그림 9〉 대학도서관 지식정보자원 유형별 변화 추이¹³⁾

또한 〈그림 10〉은 향후 대학도서관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기술의 접목으로 이용자 및 지식정보자원의 환경 변화에 따라 대처하여 나가야 할 방향 및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0〉 대학도서관 지식정보자원 및 이용자 환경 변화¹⁴⁾

우리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도서관에서 일어나리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상적인 업무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식정보관리를 위한 연구기자재 및 기법도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이러한

13) 박준식, “가상참고서가의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의학도서관, 제30권 제1·2호(2003. 12), p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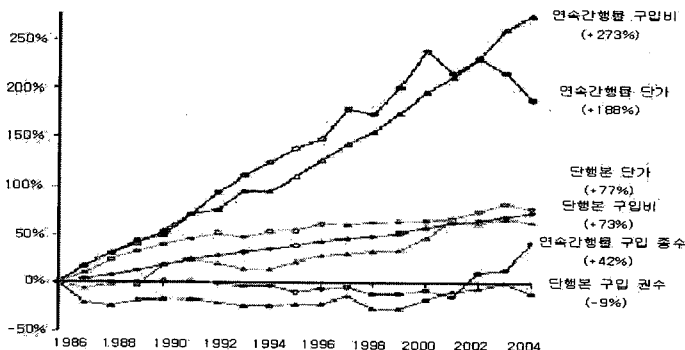
14) Lorcan Dempsey, “Looking at libraries,” NetLibrary Publishers’ Summit(OCLC, 15-17 June 2005), <http://www.oclc.org/research/presentations/default.htm>

도서관 주변의 급격한 변화 추이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을 바라보는 대학 본부나 대학 구성원의 시각은 부분적으로는 변화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도서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대학도서관 직원들도 이러한 인식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도서관 차원에서 대처하기보다는 근원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겠다. 즉, 정부나 대학당국은 현재 대학도서관이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떠한 모습인가를 직시하고, 기존의 도서관 운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대학본부에서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대학의 심장으로서 대학도서관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

4. 지식정보자원 가격의 급등과 도서관 예산의 압박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는 해외 지식정보자원을 일반도서(단행본), 연속간행물(정기간행물), 전자저널(e-journal), 웹 데이터베이스(Web D/B), 전자책(e-Book), 그리고 회색자료(보고서, 회의자료 등)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이러한 유형별 구분의 의미를 퇴색시켜가고 있다. 즉, 상기 유형의 지식정보자원들 가운데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및 일부 회색자료를¹⁵⁾ 제외하고 대부분은 전자출판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전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지식정보자원은 크게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로 구분하여 다룰 수 있으며, 후자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비중이 대학도서관에서의 지식정보유통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학술지를 포함한 지식정보자원의 가격이 다음의 <그림 11>에서와 같이 급등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11> 미국연구도서관의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구입 추이¹⁶⁾

15) '회색자료'는 일반 학술지에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학술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정부출판물, 특허자료 등을 지칭함.

16)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2005. "Monographs and Serial Expenditures in ARL Libraries, 1986-2004." <http://www.arl.org/stats/arlstat/graphs/2004/monser04.pdf> [online] [Access 2005.12.19]

최근 들어 대학도서관의 지식정보유통에서 나타나는 특성 및 변화 추이는, (1)연속간행물의 수집 및 관리상 위기, (2)전자출판물의 확장 가속화, (3)온라인 접근 게이트웨이로서의 도서관 역할 변화, (4)새로운 개념의 출판 실험 및 다양한 가격구조의 등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4월 15일자 Library Journal에서도 학술지 가격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그 게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⁷⁾ 미국의 대학 및 연구도서관들도 학술지 구독 문제로 인해 사무자동화(OA)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딜레마와 논쟁은 여전하며, 주요 출판사의 패키지 판매(Major Pub's Package Deal) 영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구입비 예산의 압박을 받는 도서관들은 학술지의 구독을 중지하거나 구독 종수를 줄여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학분야(STM) 학술지 가격의 급등은 지식정보 유통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외에도 핵심 구독 학술지의 축소, 복잡한 가격모델에 대한 공동 대처, 2005-2006년도 학술지 인상율 7-9%(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미국의 2배 수준으로 인상되므로 그 인상율은 14-18%에 이를 것임) 등의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 추가 상승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5. 대학도서관의 명칭 변경과 정체성 혼란

우리나라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원교인 50개교 가운데 대학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한 대학은 2003년도 조사 자료를 참고하면 14%에 해당하는 7개 대학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⁸⁾

학술정보원(순천대, 밀양대, 제주교육대, 인천대), 학술정보센터(한경대), 학술정보전산원(진주산업대),
교육정보원(전주교육대)

또한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원교인 90개교의 103개 대학도서관 가운데 그 명칭을 변경한 곳은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회원교편람에 의하면 19개 대학의 20개 도서관으로서 약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⁹⁾

학술정보원(고려대-서창캠퍼스, 상지대, 세종대, 위덕대, 한국기술교육대), 학술정보관(성결대, 전주대, 포항공대, 한남대, 한양대, 한양대-안산캠퍼스, 협성대), 학술정보처(목원대, 청주대, 연세대-원주캠퍼스), 정보지원센터(경일대), 종합정보센터(신라대), 정보관리처(호서대), 학술정보처 문헌부(순천향대), 정보지원처 학술정보센터(숭실대)

17) 안승대, "Scholarly Communication Trend," 2005 EBSCO Seminar(2005.5.9-13), pp.10-28.

18)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직원명부,"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2집(2004. 6), pp.193-265.

19)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회원교편람(수원 : 동 협의회, 2005).

전체 조사대상 국·공립 및 사립대학들 가운데 약 18%정도의 대학이 대학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나머지 약 82%의 대학은 2개관 이상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모두 도서관이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대학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한 대학들을 살펴보면, 장서 수나 사서직원 수, 학생 수 등을 고려 할 때 1-2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명칭변경은 도서관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도서관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거나 응용하는 컴퓨터나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은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그 수단과 방법이 너무 강조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전자도서관이나 디지털도서관이라 지칭되는 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과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도서관으로 인식되는 오류를 발생시켜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요소로 나타나기도 한다.

6. 대학도서관의 아웃소싱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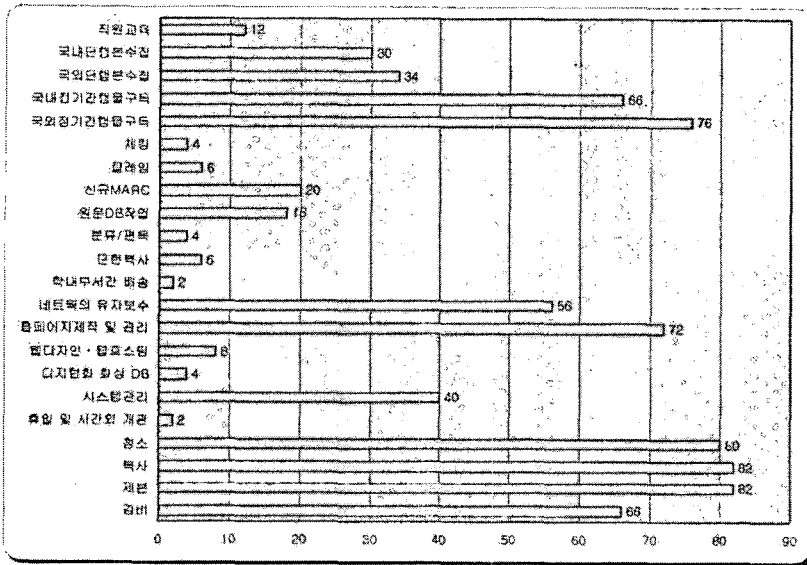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정부나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의 아웃소싱은 암묵적으로 민간시장이 정부부문 보다 더 우월한 정책결정자이며, 자원 배분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과연 대학도서관 부문도 그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의 도서관 조직 개편에 따라 대학도서관들은 기존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할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의 어려움을 덜고, 기존 인력의 축소에 대처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도서관 업무의 아웃소싱 실시를 전제로 한다면, 그 이전에 스스로 담당해야 하는 임무와 역할에 대해 최소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대학도서관은 도서관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영리 조직이 아니므로 비용 문제가 대상 선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은 비용의 측면에서 아웃소싱이 절대 유리하더라도 도서관의 중요한 업무는 직접 수행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아웃소싱은 차선책으로서 실시한다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은 도서관의 아웃소싱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의 조사·분석 작업과 함께 제도·인력·시장·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아웃소싱 추진 현황은 도서관의 전체 업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²⁰⁾²¹⁾

20) Sweetland, James H. 2001. "Outsourcing library technical services: what we think we know, and don't know." *The Bottom Line: managing library finances*, 14(3): 164-175.

21) 김영귀, "일본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과 사서직의 위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2003. 6), pp.119-141.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사서들도 경쟁적인 아웃소싱 시장 조성이라는 전제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림 12>와 같이 이미 미국이나 일본의 대학도서관에서처럼 아웃소싱으로 도서관의 많은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²⁾ 심지어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향후 초래할 정보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예견하면서조차 전문직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까지도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림 12> 국내 대학도서관의 아웃소싱 현황(%)

IV.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발전 계획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나라별 제반 고등교육 환경이 서로 다르지만,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유지 또는 발전시키기 위해 고등교육의 목표와 체제를 수정해 나가고 있다. 즉, 이러한 나라들은 대학교육의 대중화, 전자화 및 국제화, 대학 구성원의 변화와 같은 사항들에 거의 같이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 대학도서관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예산의 감소, 지식정보자원의 가격급등, 도서관장서의 속성 변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존 시스템의 변화, 이용자의 요구 및 태도 변화 등에 부딪히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각 나라별로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해

22) 박용란, 대학도서관 운영의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청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 p.24.

결하기 위한 전략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다음의 <표 2>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발전 방향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것이다.²³⁾ 여기서 이러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전략 및 대책을 살펴보면,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공동목록 작성 및 유통, 공동자료보존시설, 공동자료구매, 학술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변화 등을 들 수 있다.²⁴⁾ 이러한 전략이나 대책은 현재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경영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경영 활성화 및 전략적 발전 방향

미 국	영 국
장서 공유 및 공동 관리 • 자원공유(Resource Sharing) 강화 위한 혁신적, 비용 효과적 방법 추구 • 캘리포니아 디지털 도서관(California Digital Library):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공유 장서 구성 - 디지털 자원 절대 종수와 규모 확대 - 상업적 전자자원 공동 구입과 접근으로 비용 절감 - 인쇄 장서 지원 및 공유 메커니즘 유지 발전	전자도서관 프로그램(Electronic Libraries Program, eLib) • 1995년 시작 • 영국 고등교육 재정지원 위원회 소속 JISC가 재정지원 • 영국 내 물리적 도서관 시설과 새로운 전자정보자원과 서비스 결합
공동 자료 보존 시설 • 공동 지역 보존 도서관 시설(Regional Library Facilities)의 설치와 유지: UCLA, UC 버클리 • 필수 학술정보자원의 공동 확보, 유지, 보존, 관리 및 접근 제공 시설	국가 사이트 라이선스 프로그램(National Site License Programs) • 연속간행물 가격 급등과 대학도서관 구매력 상실에 대한 대책 • 대학도서관의 비용 효과적 전자저널 선정, 가격협상, 계약 및 제공의 모델 제시 • 전자저널의 광범한 이용과 공유 위한 협력 체제 구축
공동(협력적) 정보서비스 • 서지제어와 접근, 모든 포맷 장서의 효과적 입수, 정리, 관리	분산국가전자자원(Distributed National Electronic Resources, DNER)

23) 광동철·윤정옥·김기태,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에 관한 연구, pp.83-86.

24) ARL, 2005. "Resources per Students in Canadian ARL Institutions, 1986-2004."
 <http://www.arl.org/stats/arlstat/graphs/2004/resstu04_can.pdf> [Online] [Access 2005.11.25]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ARL), 2005. ARL Statistics: A Compilation of Statistics from the One Hundred and Twenty-Three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Compiled by Martha Kyrillidou and Mark Young. Washington, D.C.: ARL.
 <<http://www.arl.org/stats/pubpdf/arlstat04.pdf>> [Online] [Access 2005.12.19]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ALIA), 2005. "Federal Budget 2004."
 <<http://alia.org.au/publishing/budget.analysis/2004.html>> [Online] [Access 2005. 9.27]
 Canada Foundation for Innovation, 2005. "2004-2005 Annual Report."
 <http://www.innovation.ca/publications/annual/annual05_e.pdf> [Online] [Access 2005.11.26]
 CARL, 2005. "Towards an Integrated Knowledge Ecosystem: A Canadian Research Strategy." A Report Submitted to the Canadian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CARL).
 <<http://www.kdstudy.ca/2005/appendix2.pdf>> [Access 2005.11.26]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Librarians and the Office of Systemwide Library Planning, 2004. "Systemwide Strategic Directions for Libraries and Scholarly Information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pared for the Systemwide Library and Scholarly Information Advisory Committee.
 <<http://libraries.universityofcalifornia.edu>> [Online] [Access 2005.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이용자 서비스의 협력적 개발 • MELVYL(공동목록)으로 전 캠퍼스 도서관 서지 및 소장정보 공유, 자료의 상호대차 확대: 전 캠퍼스 자원의 단일 가상 장서화(2003년 현재 32백만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부터 JISC의 우선적 지원사업으로 수행 • 고등교육이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된 학술정보자원의 발전과 활용 전략 • 상이한 유형 및 분야의 전자자원의 분산 소장과 공유 • 텍스트, 문서, 이미지의 디지털화와 전자저널 재정지원
<p>디지털 정보에 대한 지속적 접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국제적 표준 채택한 디지털 보존 기반구조 발전 • 학술저널, 데이터베이스, 웹기반 정보정보 등 디지털 자원의 선정과 보존 • 교내 생산 디지털 자원(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전문 장서 등)의 공동 관리 및 보존 • 인쇄자료의 보존과 보호 지원 위한 디지털 보존 기반구조 구축 	<p>연구 지원 도서관 프로그램(Research Support Libraries Program, RSL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도서관의 연구 장서 개발을 통한 연구지원 기능 • 도서관 정보에 대한 전통적 및 새로운 접근방법 통합하여 고등교육의 연구정보 활용 기반 구축 • 4개 주력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한 소장도서관에 대한 접근 지원 - 협동 장서관리 프로젝트 - 인문학 및 사회과학 장서 연구 지원 - 공동목록의 구축과 소급변환
<p>학술 커뮤니케이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L의 eScholarship 프로그램: 교내 연구 생산물의 관리, 배포, 보존 및 공유 위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모델 구축 • 네트워크 환경에서 교수, 학생, 연구자의 학술 및 과학정보 배포와 접근 위한 정보기반구조 발전 	<p>국가종합목록(Serials UNION CA Tatalogue, SUNC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ISC, RSLP, 영국국립도서관(BL)이 지원 • 영국 전역의 국립, 학술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주요 공공도서관 소장 연속간행물 검색 • 대학도서관의 목록 업그레이드 위한 고품질 서지 레코드 정보원 구축 • 종합목록의 서지정보 제공과 링크로 참여도서관들의 연속간행물 정보공유 및 인쇄자료 원문접근 보장
	<p>그 밖의 도서관 협력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25 Consortium of Higher Education • Consortium of Academic Libraries in Manchester (CALIM) • Library Access Sunderland scHeme(LASH) • U.K. Libraries Plus • U.K. Computers Plus 등

호주	캐나다
<p>국가 대출 체계(University Library Australia -- National Borrowing Scheme for Students and Staf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CAUL 제안으로 출범 • 호주의 모든 수준 대학생들의 모든 대학도서관 이용 및 대출 허용 • 호주 내 학술정보자원의 공유 전략 	<p>캐나다 혁신재단(Canada Foundation for Innovation, CF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캐나다 연방정부가 국가 연구기반구조 강화 위해 구성 • 세계 수준 연구와 기술개발 능력 강화 위해 \$3.65 billion 을 투자 • 2000년부터 캐나다 대학도서관 협력 프로젝트(CNSLP) 지원
<p>국가보존서고(Research Resources Australia -- National Cooperative digital & Archive Sto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CAUL 제안으로 구축 • 호주와 뉴질랜드가 함께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단행본 및 학술지에 대한 접근 지원 • 개별 도서관의 자료 저장 공간 부족, 자료 이동과 식별 소요 시간과 비용 문제, 신속한 접근 필요성 문제 해결 • 자주 이용되지 않는 중요 인쇄자료의 국가 차원 경제적 저장, 보존 및 접근성 보장 시도 	<p>Canadian National Site Licensing Program(CNSL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대학도서관들이 연방정부 CFI 및 지역 프로그램들과 파트너십으로 시작 • 64개 대학도서관 참여 전자저널 콜렉션 사이트 라이선싱 • 과학, 보건, 공학 및 환경 분야 학술저널과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입수와 접근 제공 위한 협력적, 범국가적 이니셔티브 • 학술연구자들을 세계적 정보저장소와 연결하여 연구경쟁력 제고, 연구자원 공동투자 및 연구결과물 생산의 국가적 잠재력 고양 목표
<p>Janus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의 도서관과 정보센터들의 국가적 협력 네트워크 구 	<p>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CRK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출범

<p>축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UL과 호주국립도서관의 “주체 기반 인쇄 및 전자자원의 가상도서관 발전” 제안에서 비롯 • 정보자원공유로 대학의 교수와 연구 프로그램 요구 충족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전국 학술연구자들의 디지털 전자자원 및 학술연구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와 보장 • 디지털 자원에 대한 네트워크화된 접근의 새로운 모델 제시하고, 캐나다 대학의 구매력과 영향력 집결. • 학술 전자저널과 데이터베이스의 혁신적 조달과정 도입하여, 정보선택 및 접근권 확보
<p>그 밖의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DDAS(Local Inter-Lending and Document Delivery Administration System): 대학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개발 • 국립서지데이터베이스(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 목록데이터 공유하여 전국대학자원의 소재정보 제공 전자저널과 데이터베이스 컨소시엄 구입 • 호주학술연구도서관 네트워크(Australian Academic Research Library Network, AARIN): 호주연구위원회와 연방교육과학부 지원 	<p>그 밖의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novation Fund: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과 정보기술의 발전이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 인식, 주 및 지방정부가 투자 • Technology Integration Plan: 알버타주 시행, 정보기술을 교수와 학습에 통합하도록 지원하며, 지역의 주요대학들이 도서관 자원의 전자적 공유 시작, 및 목록의 공유로 노력과 투자의 중복 축소

V.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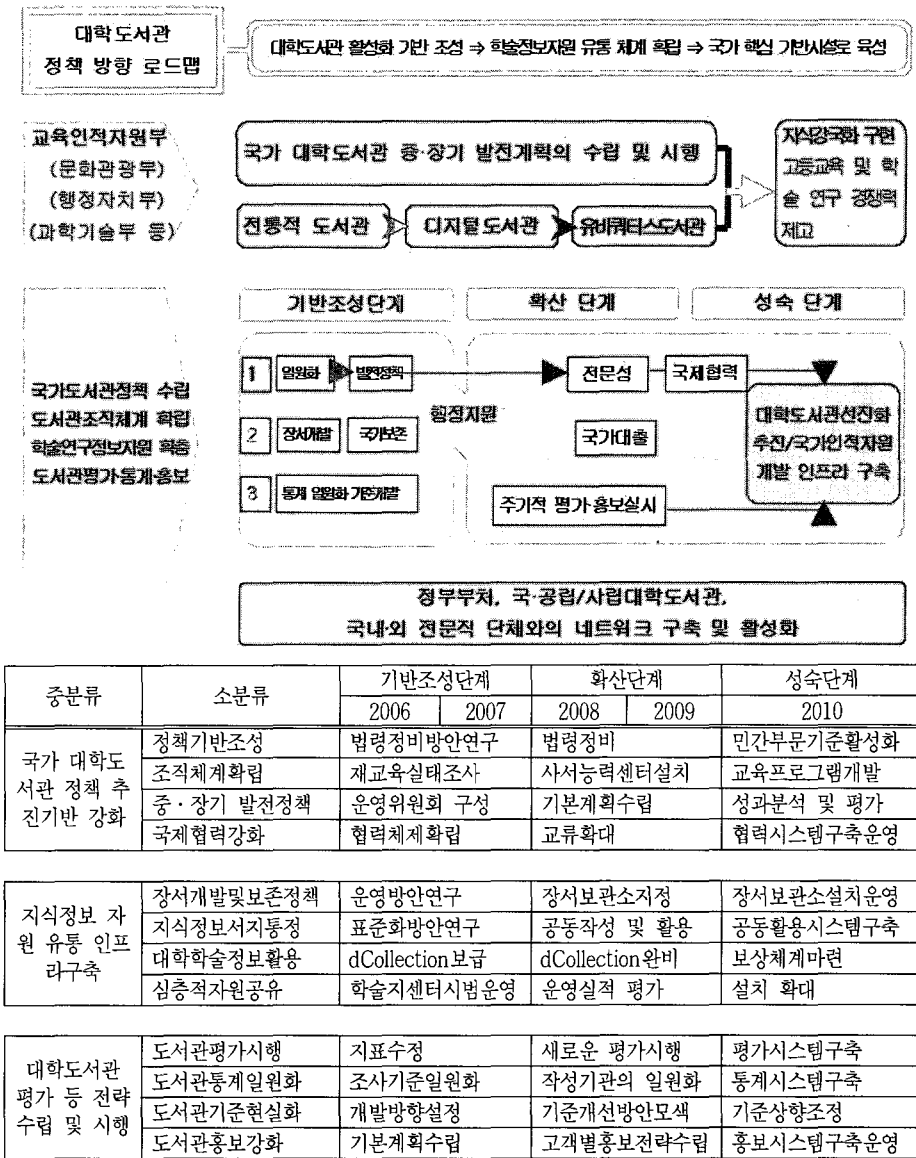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추진 계획은 지금까지 조사·분석된 대학도서관의 현안 사항과 문제점,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발전 방향 및 정부차원의 발전 계획 등을 접목하여 수립해야 한다. 현재 대학도서관의 내부 및 외부 환경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다. 즉, 대학도서관은 국가 지식강국화의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 도서관계의 선도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고, 다른 관중의 도서관에 비해 사업의 수립, 추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인력 확보 및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으며, 학술연구도서관으로서 중·장기적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학술연구 및 연구개발의 필수불가결한 지원시설이 아닌 교육기본시설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약점도 지니고 있다. 우리 대학도서관은 선진국의 대학도서관보다 인력, 조직, 예산 등이 너무 열악하고, 경직된 예산제도로 인해 시의 적절하게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우며, 대학의 구조조정 여파로 조직으로서 인사의 탄력성이 적고,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며, 이용자 증가 및 정보기술의 개발에 따른 신규 서비스 요구가 있을시 민간에 비해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고, 학술정보자료의 가격 상승 및 대학도서관 관련 통계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강점이나 약점도 도서관 주변 환경의 기회 및 위협요인에 따라 발전 방향을 모색할 때 서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기회요인으로는 지식학술정보사회 전개와 함께 학술연구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도서관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지원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형성하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학술정보화에 대한 욕구 및 기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초고속통신망 구축으로 학술정보 이용 기반이 마련되었

고, 지식경영, 이러닝(e-Learning), 정보통신 기술 혁신, 관련 제도 및 법규의 제·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그 위협요인으로는 대학도서관과 직원에 대한 대학 본부 및 구성원의 이해 부족으로 지원의지가 미약하며, 이용자의 인터넷을 통한 도서관 의존도는 높지만, 이를 위한 도서관직원의 정보관리 활동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도서관 직원의 낮은 사회적 지위 및 직원 충원의 어려움이 있으며, 도서관자료의 다양화와 전자화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국가차원의 대학도서관 담당부서의 취약성, 그리고 국가도서관정책과 대학도서관정책 관련 추진주체의 이원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은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 요인을 함께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의 현안 사항과 문제점을 이와 관련 지위 추진 방향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첫째, 기회를 통한 강점의 심화 전략이다. 대학도서관은 국가 지식강국화를 선도하는 학술연구도서관으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일과 도서관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일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둘째, 기회를 활용한 약점의 보완 전략이다. 정부는 대학도서관에 대한 지원강화와 학술정보유통 기반 확충, 선택과 집중 정책을 통한 도서관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국내 대학의 상황을 고려할 때 명확한 관련 법규와 제도의 제정 및 시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강점으로 위협의 극복 전략이다. 대학과 사회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학술정보서비스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형성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위협에 대한 약점의 대응 전략이다. 대학도서관은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도서관 관련 통계 내용을 보완함과 동시에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대정부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조사·분석된 우리 대학도서관의 현안 사항과 문제점들도 전기한 네 가지 전략들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략들을 결합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정부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현안 사항 및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해 크게 세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 일정 계획과 함께 국가차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개략적인 로드맵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국가차원의 대학도서관 중·장기 발전 전략

VI. 결론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연구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연구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학술연구정보 인프라 구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해 법규를 개정

하여 대학도서관이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대학의 '교육기본시설'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활용, 그리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육성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서관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정보자원의 총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신 해외 지식정보자원마저도 적시에 폭넓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총량을 제고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조사·분석된 결과들은 거의 대부분 수행업무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일반적으로 좋은 정책은 목적과 우선순위, 절차, 기간, 재원의 다섯 가지 요소가 짜임새 있게 갖춰지고, 사전검증과 사후평가가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이제 우리 정부도 지식정보자원의 원활한 유통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제도적, 법규적, 시스템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자치단체, 지역사회, 대학, 대학도서관의 역할 및 위상을 정립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대학도서관 관련 정부의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도 지금까지와 같이 소속 대학에 일임하거나 문제 해결식의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양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복 투자 방지 등을 통해 국가예산 및 자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제시된 대학도서관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로드맵에 의거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현실성이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과제를 도출하여 국가적 차원의 바람직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앞서 대학도서관을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결부하여 학술연구정보의 유통 및 관리 전담 행정부처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방안 및 국내·외 유관 행정부처와 기관들과 경쟁할 것인지 또는 공존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사업과제별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이러한 세부 추진 전략들은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도서관정보화추진종합계획(2000.3.)',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2002.11)', '국가지식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2005.4)' 등을 비롯한 대학도서관 관련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도서관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